

社會的 表象理論에 대한 한 考察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Serge Moscovici에 의해 창안된 社會的 表象理論은 오늘날 유럽의 社會心理學 및 心理學一般에서 새로운 理論的 패라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표상이 무엇을 뜻하며, 지칭하느냐의 概念規定의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자간에 상당한 異見과 誤解가 있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概念 및 理論的 問題와 관련된 기존의 사회심리학 논문은 물론 이 개념 및 이론과 관계된 社會學 및 哲學的 理論의 고찰을 통해, 이 개념에 대해 보다 精巧하고 구체적인 概念化를 시도하였다. 동시에 社會・文化的 側面을 강조하는 이 이론의 특성을 個人心理中心의 미국의 사회심리학과 관련시켜 논하였으며, 끝으로 이 이론에 적합한 방법론적 이슈를 논하였다.

社會的 表象理論은 2차 세계대전후에 프랑스에서 창안된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學風(tradition)이다. 이 학풍은 「Moscovici」가 “La Psychanalyse: son image et son public(1961)”를 저술하면서 비롯되었으며, 「Farr」와 「Moscovici」는 자신들이 編輯・出版한 “Social Representations(1984)”에서 사회적 표상에 대한 理論的 解説과 더불어,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당라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이론이 점차로 영국, 캐나다, 미국을 비롯한 영어문화권에 擴散되기 시작하면서, “The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17: 4, December, 1987)”에서는 이 이론을 특집으로 다루어 紹介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에 대한 올바르게 충분한 이해가 영어문화권에서 아직 不足하다는 것이 「Farr」(1987)를 비롯한 이 분야 연구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심지어는 이 분야 연구자들 간에도, 사회

적 표상이 어떤 現象이며 概念인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혼돈이 빚어지고 있는 데는 이 이론의 창안자인 「Moscovici」 자신이 이 개념에 대한 定義를 소홀히 한데서 1차적으로 起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정의하는 일보다, 이 개념이 指稱하는 現象自體를 說明하는 일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社會的 表象概念에 대한 모호한 점에 대해 「Moscovici」 자신은 사회적 表象概念에 대한 엄밀하고도 정확한 정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說明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사회심리학은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의 部類에 속해야 하며, 따라서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정의의 엄밀성을 脫避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과학의 개념-예컨대, 集團無意識, 카리스마, 社會階層-에 대한 엄밀한 정의가 어디있으며, 또 어느 누가

그것을 알고 있는나고 반문한다. 오히려 그는 철저한 의미규정이 연구하려는 현상에 대한 不毛化(sterility)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Kaplan」(1964. p. 70)의 말을 빌어, 행동과학 연구에서 의미와 개념에 대한 엄밀성의 요구가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想起시키고 있다(Moscovici, 1988p. 213).

사회적 표상개념 및 이론에 대한 이해의 混沌에 기여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社會的 表象”이란 개념이 종래의 미국 심리학 및 사회 심리학에서 사용해 온 類似概念들—예컨대, 認知圖(세마), 態度 및 意見, 價值, 世界觀(Weltanschauungen), 現實의 社會的 構成(Berger & Luckmann, 1966)등—과 그 성격면에서 매우 유사하면서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Moscovici는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어떤 면에서 위에 예시된 類似概念들이 사회적 표상 개념의 이해를 汚染시켜, 사회적 표상의 의미와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다고까지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Moscovici」의 사회적 표상이론은 심리학의 어느 전통에, 더 나아가 철학의 어느 계파에 속하며, 그리고 社會學 및 文化人類學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 있다. 本稿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Moscovici」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要約 提示함으로써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社會的 表象理論의 構成的 背景

사회적 표상에 대한 「Moscovici」의 최초의 연구는 「프로이트」의 精神分析理論이 프랑스 사회에서 일반인들에 의해 어떻게, 어떤 것으로 表象化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서 그의 연구관심은 정신분석과 같은 과학적 지식 즉 科學의 世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일반인의 지식 즉 社會的 世界로 轉化되어 지는가를 자신의 이론인 사회적 표상이론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는데 있었다. 즉 그는 정신분석학의 사회적 翻案을 顯視化(make explicit)하고, 동시에 그 翻案化의 사회적 과정을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Moscovici의 대표적인 두번째 연구는 「Le Bon」의

群衆心理를 사회적 표상의 입장에서 연구한 「L'Âge des Foules: Un traité historique de psychologie des masses」(Moscovici, 1981)이며, 그 영어판은 1985년에 출판된 「The Age of the Crowd: A historical treatise on mass psychology」로, 여기서 그는 앞서의 정신분석연구에서와는 그 초점을 달리하였다. 즉 정신분석 연구에서는 精神分析이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일반 사회에 傳播되었느냐에 관심은 둔 반면, 「Le Bon」의 군중심리 연구에서는 「Le Bon」의 저서가 군중심리학이라는 知識體系 또는 表象體系를 創出(produce)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의 두 연구는 모두 과학의 세계가 일반인의 사회적 세계로 轉化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데 그 近接的 意圖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自然科學에서 다루는 세계와 社會科學에서 다루는 세계가 어떻게 다르며, 따라서 그 이론화 및 그 접근방법에서 양자간에 어떻게 달라야 한다는 것을 실제의 연구를 통해 나타내 보이는데 보다 원대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Moscovici는 그의 著 “The Age of the Crowd (1985)”에서 과학을 두 종류로 구분한 바, 그 하나는 歷史를 통해 創造되는 과학—예컨대 物理學, 生物學 등과 같이—과, 다른 하나는 歷史를 創造하는 과학—예컨대, 政治經濟學, 集團心理學 등과 같이—이다. 예를 들어 「Le Bon」의 군중심리는 히틀러, 뭇쏘리니, 레닌, 스탈린과 같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정치과정에서 직접 활용했다는 점에서 歷史의 創造에 직접적 影響을 준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Isaiah Berlin(1976)은 18세기 철학자인 Vico와 Herder에 대한 연구에서, 자연의 세계에 대한 학문 즉 과학과 인간의 세계에 대한 학문 즉 社會科學間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Berlin 1976). Vico에 대한 Berlin의 분석에 따르면, 인간은 停滯의이며 固定的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고 또한 그 세계에 자신을 適應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이 세상을 轉化(transform)시킬 뿐 아니라 자기자신을 轉換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社會的 存在로서의 인간에 대한 과학과 자연과학을 구분하는 根據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을 可變的인 존재라 할때, 인간에

게서 不變을 法則을 찾아내려는 접근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연구-예컨대, 心理學을 포함한 社會科學-에 적합치 않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접근은 인간의 창조와 무관한 人間外的 世界 즉 自然界的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다.

Berlin은 Vico에 대한 연구에서, 인간의 위치를 第3者的 觀察者(mere observers)와 意圖的 行爲者(actors)로 구분하고, 전자는 自然界에 대한, 후자는 社會界에 대한 인간의 관계로 조망하였다. 따라서 자연계에 대해서 인간은 外界者로서 다만 추론만 할 수 있을 따름이며, 그 自然界의 근본적 본질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歷史, 社會, 文化, 言語, 數學과 같이 인간이 창조한 인간-사회계는 인간의 직접적 영향하에 있으므로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간의 접근은 자연과학에서 보다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다. 마치 공예가가 자신의 創作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인간계에 대해 推論(자연과학계에서의)의 차원을 넘어, 그 근본적 機制에 대해 이해(understanding)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연구의 방법면에서 Vico는, 先驗的(演繹的) 및 歸納的(經驗的) 방법은 자연과학적 대상에 적합한 반면, 인간계에 대해서는 構想(fantasia)의 방법이 부가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構想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인간경험 세계의 표현인 象徵的 表象(symbolic representation)의 기저를 통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Moscovici」의 社會的 表象理論이 科學的 研究方法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론이라는 강력한 批判을 Gustav Jahoda를 비롯한 미국식 사회심리학자들로부터 받게된 배경에는 Mosovici의 이론이 위에서 언급한 Vico의 파라다임적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데 起因한다. 그 短篇的 證據를 보면, Moscovici는, 1)사회심리학 내지 심리학을 자연과학이 아닌 사회과학에 편입시키고 있는 점, 2)인간현상은 무한히 可變的이라는 점, 3)따라서 인간의 심리적 현상을 통제된 사례에서 公式化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 4)인간은 스스로 세계를 構成한다는 점 등을 그의 이론 구성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다(Moscovici, 1988). Moscovici에 있어 “理論은 予言을 통해 檢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요구조건”이 拒否되고 있으며, 그는 이론의 本質에 대해 자연과학에서와는 다른 다음

과 같은 시각을 펴려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론은 사회적 現象을 照望하는 方式(a way of looking at)이며 동시에 사회적 現象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體系(system)이다. 따라서 이론을 判斷 評價하는 유일한 準據는 어떤 이론이 意味가 있느냐(meaningful)아니면 無意味하나(meaningless)에 있다. 마치 무의미 철자의 연구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철저하게 정의된, 그러나 무의미한 개념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 과학을 構築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Moscovici, 1988)

Moscovici는 과거의 심리학-Wundt의 대중심리학(Völkerpsychologie), Freud의 집단심리학(Massenpsychologie), McDougall의 집단심성(Group Mind)-은 오늘날의 자연과학 파라다임적 심리학과는 달리 인간과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접근을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심리학은 다시 과거의 人間科學的 接近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오늘날의 심리학이 과거의 人間科學-社會的 心理學에서 이탈하여 비사회적(non-social)심리학으로 편파된 데는 심리학에서 데카르트적 二元論(Cartesian dualism)을 수용한데서 기인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는 데카르트적 二元論을 초월하고자 하였다. Moscovici는 현대심리학의 특징이기도 한 主體(subject)와 客體(object)의 분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추구했으며, 그는 그 해결을 表象(representation)의 개념에서 模索했다. 그가 구성한 사회적 표상의 개념에서 보면, 표상은 어떤 對象(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사회적으로 구성된 실재적 表象體이며, 동시에 이러한 표상체가 인간의 마음 속에 내재된 상태를 모두 지칭한다. 즉 표상은 사물에 속하는 속성인 동시에 사람에게 속하는 속성이기도 하다.

Markova(1982)는 “Paradigms, Thought and Language”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철학사의 분석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두개의 反命題의 파라다임 즉 데카르트적 파라다임과 헤겔적 파라다임을 抽出하였다. 여기서 그는 현대심리학에서의 인지연구의 대부분은 데카르트적 판정을 暗默的으로 애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이원론에 대한 拮抗的 調節은 헤겔적 통합이라고 Farr(1987)는 주장한다. 언

어의 사회심리학을 연구한 Markova도 자신의 이론적 기원을 Herder, Humboldt, Hegel과 같은 독일표현주의자(German expressivists)에서 찾고 있다. 언어는 그 발생본질면에서 社會的 現象(social phenomenon)이라는 Markova의 시각은 언어학에서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취하는 「Chomsky」와 정면으로 相反되는 것이다. Rommetveit(1984)는 表象의 창조와 전파에서 言語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의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Moscovici는 社會的 表象과 言語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社會的 表象은 知識을 獲得하는 특정한 한가지 방법이며, 동시에 획득된 知識을 相互交換하는 手段이다(1981). 思考는 사람들간에 일어나는 사건이며, 우리는 말하기 위해 사고한다. 따라서 思考(thinking)와 主張(arguing)은 거의 같은 것이다(1988). 현대언어의 특징은 언어에 表象이 熔接되었다는 점일 것이다.(1981).

언어와 사회적 표상간의 관계는 사회적 표상의 속성을 분석해 볼 때 더욱 鮮明해진다. 사회적 표상은 세상의 의미를 凝縮시키고 秩序化하는데 기여하는 概念(concepts)과 세상을 의미있는 형태로 재생시키는 知覺(perceptions)의 중간에 위치하는 現象이라는 것이다(Moscovici, 1981). 이 두가지 속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함께 붙어 다닌다. 따라서 사회적 표상은 物像的(iconic) 側面과 象徵的(symbolic) 側面을 갖는다. 사회적 표상으로 부하된 언어는 사실자체를 표현하는데 관계된 觀察性 言語(language of observations)와 사실에서 象徵을 추출하는데 관계된 論理性 言語(language of logic)의 속성을 共有하게 된다(Moscovici, 1981).

앞에서 필자는 사회적 표상의 개념과 그 이론의 구성에서 하부적 기반으로 작용한 철학적 배경과 더불어, 표상과 언어와의 관계를 개괄하였다. 이러한 배경위에서 구축된 사회적 표상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社會的 表象이란 概念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나. 社會的 表象의 概念

Moscovici는 자신의 著書 또는 그의 이론을 추종하

는 동료들의 저서에서 序文 또는 寄稿形態의 글을 통해 사회적 표상에 대한 정의를 數衍的 說明과 더불어 여러번 제시해 왔다.(예컨대, Moscovici, 1963, p.25; Herzlich의 1973년 저서의 서문, p.XIII; 1981, p.181 등). 그러나 그의 정의와 설명은 독자들의 의문에 만족스런 설명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여기서는 Moscovici의 정의는 뒤에 제시하기로 하고, Moscovici 이론의 支持者이며 동시에 긍정적 측면에서의 批評家인 Rom Harré(1984)의 사회적 표상에 대한 설명을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Rom Harré(1984)는, Moscovici, Herzlich, 그리고 그의 동료들의 설명만으로는 사회적 표상개념을 충분히 社會化(fully socialize)시키는데 부족하다고 언급하면서, “表象(representation)”의 概念과 “社會的(social)”의 概念을 분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특히 그는 불어의 “REPRESENTATION”개념을 영어의 “representation”으로 직역하는데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Moscovici의 원의에 맞는 영어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1. 불어의 REPRESENTATION과 영어의 representation

영어사전에서 “representation”은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1) “representation”은 어떤 사물 또는 어떤 사람과 같은 것(a likeness) 또는 그것의 再生(reproduction)이다.

(2) “representation”은 특정한 사실(a fact)을 對話的手段을 통해 타인앞에 제시하는 행위

(3) “representation”은 위의 (2)에서 결과되는 즉, 제시된 心象(image) 그 자체, 또는 概念 혹은 아이디어 그 자체이다.

사회적 표상이란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상의 개념속에는 (1)번과 (3)번의 정의가 동시에 포함된다. 위의 정의에서 표상이 갖는 두드러진 특성의 하나는, 표상은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對象(simulcrum)이며 더 나아가, 視角的 代像(visual simulcrum)으로도 作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表象은 원래의 사물이나 사람을 다양한 형태로 대치할 수 있다.

그러나 Moscovici가 사용한 불어의

“REPRESENTATION”은 영어의 “representation”과 지칭하는 바가 약간 다르다. 물론 불어의 REPRESENTATION속에 “代像”이나 “複製品(copy)”의 의미가 똑같이 포함되나, 이론과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脈絡에서 불어의 REPRESENTATION을 사용할 때에는, 영어의 representation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것을 나타내는 意味感”이 弱化된다. 사회적 표상이론에서 표상이란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을 보면, 사물의 표상으로서의 의미보다, 특정한 現象을 설명하는 說明體系 즉 “理論”의 개념이 더욱 많이 含有되어 있으며, 따라서 영어의 “representation”보다 “version”의 개념이 불어의 “REPRESENTATION”에 가깝다고 Harre는 주장한다. 즉 “Representation”은 어떤 이론의 日常的 翻案(a lay version of a theory)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의 일상적 변안인 表象의 기능은 일상적 현상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具體化, 實像化, 實體化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은 資料(data)가 생성되는(created)과정에 관심을 둔 과학철학자들이 이론(theories)에 부여하는 역할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理論과 資料간의 相互作用은 知覺(perception)水準에서라기보다 信念(belief)水準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우리가 직접 “...을 보는 수준(see...)에서” 아니라, “...라는 것을 보는 수준(see that...)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Putnam, 1971). Moscovici가 사용하는바 대로의 “社會的 表象”의 역할은 資料算出(data creation)에 寄與하는 理論의 役割과 매우 類似하다.

2. 사회적 표상에서 “社會的”이란 뜻

Moscovici가 사회적 표상이론을 구성하게 된 動機중의 하나는 북미와 영국의 個人志向의 社會心理學에서 脫避하여, “社會的 形態의 社會心理學(explicitly social form of social psychology)”을 形成하는데 있었다(Farr, 1987). 그의 이러한 동기는 그가 사회적 표상의 개념을 사회학자인 Durkheim(1898)의 集團表象(collective representation)에서 빌려와, 이 개념을 加工・擴張시켰다(Moscovici, 1981)는 그 자신의 진술에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표상의 개념이 “社會的” 性格을 基盤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Moscovici의 사회적 표상에 대한 정의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사회적 표상을 “地域社會의 集團體가 행위의 樣式 設定과 意思疏通의 목적을 위해 社會的 對象物(인간을 포함한)(social object)을 의미있는 실체로 形像化 한것”(Moscovici, 1963, p25)으로 정의했다.

위의 정의에 이 개념이 사회적 성격을 暗示하는 용어나 표현이 포함된바, 1)社會的 對象, 2)地域社會의 集團體, 3)意思疏通의 目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Harré(1985)는 Moscovici의 “사회적 표상(1984)”에 대한 서평에서, “표상”의 개념을 한정하는 “사회적”이란 개념에 대한 三重的 模糊性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위의 정의에 포함된 “사회적 대상”의 경우에서와 같이, “1)사회적 그 어떤것(something social)”의 표상을 지칭한다는 의미에서의 “사회적”이다. 上記書에서 보면 이점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이란 말이 模糊하게 使用되는 부분이 있음을 Harre는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사회적 표상을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똑같이 共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일 수 있다. 여기서 “사회적”의 개념은 위의 정의에서 “2)지역사회 집단체가 3)의 사소통의 목적을 위해”란 표현에 內布된 의미에서의 “사회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세번째로는 개개인으로서 동일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구성원의 집합이 集團性을 띄게 될 때 社會的 表象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를 지칭하는 의미에서의 “사회적”이다. 예를 들면, 集團構成員이 개별적으로 사회적 표상이 되기위해 필요한 요소를 부분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나, 집단으로 구성될 때에만 비로소, 또는 상호의사소통하거나, 그 요소를 表出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주어질 때에만 비로소 사회적 표상이 생겨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社會的”이다.

위에서 두번째 의미의 “사회적”을 “共有-社會的(distributive-social)”, 세번째 의미의 “사회적”을 “集合-社會的(colective-social)”이란 개념으로 구분할 때, 공유-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는 個人單位의 分析을 통해 가능하나, “집합-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는 개인단위의 분석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전자의 경

우에는 實驗的 研究가 가능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험연구가 불가능하다. Harre는 이러한 分類體系속에서 사회적 표상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적표상연구의 대부분이 共有-社會的 表象 研究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그는 사회적 표상이론가들이 추구하는 바대로 사회적-사회심리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빌려온 Durkheim의 “集合的(collective)표상”개념의 原意대로 구조화된 집단(structured group)의 集合性(collectivity)을 연구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사회적 표상의 정의

사회적 표상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개념을 만들게 되었는가에 대한 Moscovici 자신의 설명을 먼저 吟味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표상의 개념은 그 어원 면에서 볼 때, Moscovici 자신이 창안한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자인 Durkheim의 집단 표상 개념에서 借用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Moscovici 일파들은 Durkheim의 집단표상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을 가공해서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사회학이 아닌 사회심리학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조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oscovici가 본 차이점은 먼저,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표상을 더이상 분석할 수 없는 原素的 要素로 보고, 이 표상의 개념을 곧바로 社會現象에 대한 說明概念(또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사회학에서는 사회적 표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그 내부구조는 어떠한지 또한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는 表象의 構造와 그 內部的 力動關係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최초의 시도는 Piaget가 행한 아동의 세상에 대한 표상연구이다(Moscoivci, 1984). Moscovici에게 있어 사회적 표상은 사회학에서 사용해 왔던바와 같은 說明概念(explanatory concept)이 아니라, 說明되어져야 할 現象(phenomenon)이다.

두번째 차이점을 보면, 먼저 Durkheim의 집단표상은 科學, 宗教, 神話, 時間 및 空間構成樣式등을 포함하는 제반의 知的活動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이디어(생

각)이건, 감정이건, 또는 신념이건 모두 집단표상의 範疇에 들어간다.

Moscovici는 Durkheim의 표상개념이 너무 包括的 이어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치는 愚를 犯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Durkheim의 표상에 포함되는 지식과 신념이 너무 많고, 다양하며 또 이질적이기 때문에 몇개의 一般的 特性次元으로 規定하기 어렵고, 또한 연구에서 이를 모두 다룰 수도 없다는 것이다.

Moscovici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표상에 대해 두가지 측면에서 制限을 가하였다. 먼저 사회적 표상이 기능을 발휘하고 작동되는 狀況脈絡속에서만 社會的 表象의 實體를 認定하고 이에 局限시킴으로써 사회적 표상이 指稱하는 現象의 範圍와 多樣性を 縮小시켰다. Moscovici의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표상은 지식을 획득하며 동시에 획득된 지식을 타인과 교환하는 樣式中 특정한 한가지 形態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표상은 사회에서 知識을 獲得하고 傳達하는 手段이 되며, 그 수단은 유일한 수단이 아니라, 여러가지 수단중 한가지의 特定한 手段이다. 여기서 표상을 통해 지식을 얻고 전수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Moscovici, 1988참조).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지식은 獨自的 思惟나 直接的 體驗을 통해 얻어지기 보다는 意思疏通을 통해 공급받는다는 것이다.¹⁾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貨幣는 認知이며, 동일한 인지내용이 집단속에서 반복적으로 교환될 때, 그러한 인지내용은 主觀性認知에서 客觀性 認知로 轉化되며, 구체적인 外的準據를 장착하게 된다. 이것이 곧 사회적 표상이며, 이러한 사회적 표상은 새로운 지식을 얻는데 準據體制로 作用하여, 무지의 자극이나 대상을 상식과 같은 既定事實의

1) 그의 이러한 생각은 Piaget의 인지발달론적 시각이나, 사회적 인지에서 일반인을 “naïve scientist”로 보는 시각과 다르다. Piaget는, 아동은 스스로 세상을 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사회적 인지에서 일반인은 변량분석적 방법과 같은 과학적 정보 처리방법을 구사하는 것으로 가정하나, Moscovici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영향의 과정을 통해 지식을 얻게된다는 견해를 취한다. Moscovici(1984)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타인에게 말하기위해 생각하며, 좀더 파장하면 우리는 입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知識類型으로 轉化시키게 된다. 바로 이러한 常識的 知識 또는 그저 상식은—철학자 Hannah Arendt(1982, p. 21)가 말한것처럼—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상식의 도움없이 意思疏通이 不可能한 것이다. 또한 그것 없이는 말도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사회적 표상은 지식을 얻고, 교환하는 여러 수단중, 특정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언급되나, 여기서 말한 특정한 한가지 수단이란 常識的 範圍의 知識을 얻고 교환하는 수단을 지칭한다. 하겠다.

Moscovici가 Durkheim의 집단표상개념에 가한 또 하나의 修正은, Durkheim이 集團表象을 변하기 어려운, 고정적 성질을 지닌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전통에 따랐던 Durkheim의 이론에서 표상은 사회에 존재하는 말(words)이나 생각(ideas)을 고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概念化되었다. Moscovici는 이러한 개념화가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으나,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표상이 더욱 可變의이며, 傳播性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표상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의 표상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短命性을 갖는다. 특히 정치, 과학, 사회문제에 관련된 표상은 기존의 표상이 고정화되기도 전에 새로운 표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표상으로 쉽게 代置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다양한 상식이, 그것도 서로 유관한 성질의 상식과 정보가 공존하는 오늘의 사회적 현실에서는 표상의 구조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높은 力動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변성, 단명성, 역동성을 함축하며, 동시에 표상이 사회적과정속에서 생멸된다는 점을 示唆하기위해, Moscovici는 Durkheim의 집단적 표상에서 “集團的”을 “社會的”이란 말로 대체하고, 그 差異點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 표상에 대한 Moscovici 자신의 정의를 보자. 그는 Herzlich의 연구 영문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표상은…… 일종의 認知體系로서, 그 인지 체계는 객관적 현실이나 학술적 설명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서의 論理體系와 言語的 表現體系를 갖는다…… 사회적표상은 어떤 대상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심상 또는 태도와 같이 그렇게 단순한 認知體系

가 아니다. 이것은 비록 학문적 이론과는 그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론의 形式과 機能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 지식과는 독립된 별도의 知識體系이다……. 이러한 이론 또는 지식체계는 가치체계, 아이디어체계 그리고 행동체계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二重的 機能을 갖는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에 대한 관계양식과 대응방식을 제공해 준다. 둘째 사회적 표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상에 대해 사람들이 共有・共用하는 전형적 의미(또는 象徵)記號 및 說明體系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세상사 및 과거의 역사적 사상에 대해서 전형적 해석양식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Moscovici의 Herzlich책 서문, 1973 p. X iii).

위의 정의에서 사회적 표상은 어떤 것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規定하고 있다. 사회적 표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많이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서는 표상의 기능 또는 역할에 대해서만 약간 數衍해 본다. 위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 표상은 두가지 기능 즉 1)世上事에 대한 關係樣式과 對應方式을 제공하며, 2)社會的 意思疏通과 相互作用에서 典型的 意味記號 및 說明體系와 世上事 및 歷史的 事象에 대한 典型的 解析樣式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기능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가? 다시말해, 사회적 표상은 우리의 인지활동에 어떻게 개입하며 또는 인지활동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Moscovici 1984참조)

먼저 사회적 표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물과 사람들을 접할 때, 이들 사물과 사람들을 자신이 가진 기존의 인지적 틀 속에서 舊態化(conventionalize)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사회적표상이 생소한 대상 자극에 대해 일정한 認知態를 부여하고 자신들이 既習得한 기존의 범주 속에 이들 자극을 定位시키며, 더 나아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들 자극이 과거의 것과 구분되며 동시에 집단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새로운 형의 認知體로 模型化되게 하는데 사회적 표상은 기여한다. 일단 新型的 認知體模型이 설정되면, 이들 자극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요소들은 이 모형에 추가되고, 그 모형속에 融合된다. 우리가 지구는 둥글다고 주장하거나, 우리가 공산주의를 적색과 연합시키

거나, 인플레이와 화폐가치의 하락을 연합시키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자극의 典型化過程을 통해서 새로운 認知體模型이 구성되고, 구체화 되었음을 뜻한다. 즉 표상의 일차적 역할은 새로운 생소한 대상자극을 기존의 전형을 통해 舊態化, 즉 典型化시키는 일이다.

다음으로 표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드는 慣行的 規範性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표상이 규범성을 갖는데는 표상자체에 내재된 두가지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규범력의 첫 번째 원천으로, 사회적 표상은 우리가 어떤 사상에 대해 생각해보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이미 존재해오는 構造化된 認知體라는 데서 기인한다. 예컨대 한국의 아동은 어렸을 적부터 ‘孝’라는 사회적 표상을 부모의 행동이나, 손윗사람들의 거동속에서 접하게 된다. 아동들은 도덕 과목을 통해 효를 배우기 이전에, 修身教科書를 통해 효를 학습하지 않고도, 주위사람들을 통해 ‘孝’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既成的 解答을 얻게 된다. 오랜 세월을 통해 한국사회에 정착된 효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아동들로 하여금 효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年今에 이르기 전, 아동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고,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좀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아동들은 스스로의 독자적 사고를 통해 ‘孝’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미 존재해 오는 ‘孝’에 대한 既成的 表象을 단순히 반추하는 형태의 再思考를 하거나 再引用하며, 또는 이미 사회에 존재하는 ‘孝’의 概念을 머리속에서 再現할 뿐이다. 즉 ‘孝’라는 개념 또는 현상은 이미 認知的으로 構造化되고 社會的으로 共有된 상태에서 한국의 문화속에 사회적 표상으로 定着되어 있어서, 한국의 아동은, 또는 성인은 이를 의심하거나 의식적으로 인식할 겨를도 없이, 不知不識間에 이를 당연스러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회적 표상에 사회적 규범력을 부여하는 두번째 원천은 위에서 이미 示唆된 “因習”의 拘束力에 기인한다. 우리의 사회적 그리고 지적활동은 결국, “리허설” 또는 “리사이틀”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생각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活性的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경험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에 浸透한다. 과거

의 경험과 생각은 여러가지 점에서 현재의 것보다 더욱 現實性을 갖는다. 사회적 표상이 갖는 규범력은 바로 사회적 표상이 어제의 현실을 통해 오늘의 현실을 통제하는 能性에서 기인된다. 심리학실험에서 盲眼實驗(blind experiment)法을 사용하는 이유도, 인습의 구속력을 제거시키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社會的 表象의 生成過程

社會的 表象의 생성과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접하고 구성하는 지식의 세계를 그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고, 거기서 社會的 表象이 어떤 유형의 지식세계와 관련되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合意的(consensual)世界와 物化的(reified)世界

우리의 지식세계를 省察해보자. 우리가 가진 지식의 대부분은 소위 과학적 지식과 같이 그 지식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과 物的 根據를 가지고 있거나, 專門的 檢證에 토대한 지식이라기 보다는 社會的 相互過程 속에서 合意的으로 구성된 常識性 知識임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식적 지식의 세계에서는 眞僞의 準據보다는 意味性, 價值性, 有用性이 더욱 중요한 活性的 準據로 작용하며, 전문가나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도 관심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교육문제, 사회 정의 문제 등에 대해, 반드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 또 일상의 생활에서 중요한 화제거리로 등장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쉽게 목격할 수 있다. 만일 여기서 社會的 또는 集團的 合意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合意的 理解가 普遍妥當한 지식으로 사회에서 適用될때, 이러한 지식은 사회적으로 表象化된 지식이 된다. 合意的 世界는 이와같이 일반인이 合意的 過程속에서 사회적으로 타당화된 知識世界를 지칭한다.

다른 한편 이와 相反되는 物化的 世界에서는 意味性, 價值性, 有用性, 目的性 보다는 客觀的 事實, 物的 證據와 같은 사물과 객관적 현실의 실재 그 자체가 판단 및 지식 형성에서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

여기서는 지식의 眞僞 그 자체가 絶對的 判斷準據이므로,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부여받은 특정한 사람들—예컨대, 과학자, 심리학자, 역사학자—만이 진리적 지식의 발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수동적 입장에서, 이들 지식을 “아 그런 것이구나”식의 彼岸의 知識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物化的 世界에서는 역사, 자연, 기타 사회에 존재하는 客觀的 事象 등이 世上事를 결정하므로, 사람은 그저 第三者的 立場에서, 인간이 具有한 본질적 특성—예컨대, 개성, 목적성, 가치추구성 등—을 되도록 배제한 비인간의 상태에서 彼岸의 自然世界, 歷史世界, 社會世界를 관찰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과학이 物化적 세계를 이해하는 수단이라 한다면, 社會的 表象은 合意的 世界를 다루는 도구이다. 그러나 이 양자의 세계는 완전히 격리된 不可逆的 世界는 아니다. 오히려 유동적인 세계이며, 실제의 현실에서는 양면의 세계가 서로 混合된 경우도 허다하다. 지구는 둥글다는 과학적 지식은 이미 일반인의 상식으로 轉化되었으며, 서구에서 精神分析學은 사회에서 이미 普遍的 知識으로 再構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物化的 知識이 合意的 知識으로 轉化된 실례로서, Moscovici의 정신분석연구는 바로 Freud에 의해 발견된 정신분석이라는 物化적 지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合意的 世界로 編入되었는가를 밝히는데 목적을 둔 연구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과정도 있다. Farr(1987)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자도 일반인의 상식을 떠나 생존할 수 없는 한, 이들도 合意的 世界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과학적 이론구성이나, 연구의 과정 속에는 不可避하게 合意的 知識이 反映안 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基實 사회과학의 이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연과학적 이론까지도, 우리 일반인에게 쉽게 공감이 가고 이해되는 것은 合意的 世界의 지식이 과학이라는 정당화된 과정을 통해 物化的 知識으로 轉化되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상식 속에는 상식인듯 하면서도 과학적 지식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음은 이 두 세계의 지식이 混合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개의 세계의 대비는 심리학의 구성과 연구에 중요한 照望圖와 示唆點을 제공한다. 먼저 실험

심리학, 생리심리학과 같이 자연과학 모형을 추종하는 전통적 심리학은 物化的 世界의 知識을 追究하였으며, 따라서 연구의 접근에서도 自然科學模型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집단속의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에서도 지금까지는 物化적 세계의 연구모델인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따랐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이 일반인의 사회적 심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며, 일반인의 사회적 심리가 物化的 知識世界보다는 合意的 知識世界와 더욱 크게, 더욱 밀접히, 더욱 현실적으로 접합되어 있음을 勘案할 때, 심리학 특히 사회심리학에서는 合意的 世界의 이해를 위한 접근을 새로이 插入, 強化해야 한다. 심리학의 창시자인 Wundt도 物化的 世界의 심리학과 合意的 世界의 심리학에 相應하는 두개의 심리학 즉 實驗心理學과 大衆心理學(Völkerpsychologie)을 별도로 발전시켰다는 것은 전자만을 강조하는 현대심리학에 중요한 반성의 틀을 제시한다 하겠다(Farr, 1989).

2. 社會的 表象을 형성하는 두가지 과정: 據點化(anchor)와 具體化(objectification)

과학과 社會的 表象은 서로 현격히 상이하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相補的 關係에 있으므로, 우리는 사고와 대화의 과정에서 두개의 등록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등록기만을 사용할 것을 희망한다. 다행히 최근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급증하는 과학적 지식이 合意的 世界로 원활히 編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과학이 상식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여기서 과학은 상식적인 것을 덜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과학이 普遍化되어서 상식으로 轉化하는 즉 덜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인 것으로 만드는 역류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덜 상식적인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상식적인 것으로 만들려 하나? 즉 낯선 것을 왜 親熟한 것으로 만들려 할까? 낯선 것 즉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곧 社會的 表象이 生成되는 過程이며, 社會的 表象이 일단 形成되면, 과거에는 生疏했던 것이 親熟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이다.(Moscovici, 1984). Moscovici(1984)는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세상에서 평범한 것처럼 매력있고 실속있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平凡 속에는 지식의 세계가, 文化가, 觸感的으로 다가오는 衝動性을 유발하는 미지의 세계가 평범이라는 그늘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즉 비범한 비친숙의 세계를 평범한 친숙의 세계로 만들려는 동기가 社會的 表象을 낳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친숙하지 않은 말, 생각 또는 존재를 평범하고, 가까우며, 현실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는 과거의 기억과 既形性된 결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思考過程이 作動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고과정에는 두개의 機制(mechanisms)가 개입된다.

첫번째 기제는 친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일상적 범주와 이미지로 변형하거나, 이들 친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친숙한 배경에 끼워넣으므로써, 비친숙성 아이디어에 친숙의 據點을 마련하는 過程이다. 이 과정의 활동을 據點化(anchoring)라 부른다. 예컨대, 독실한 종교인이 어떤 새로운 이론이나 낯선 사람의 행동에 접할때, 이를 종교적 차원의 가치체계에 관련시켜 생각하는 思考 活動이 據點化過程에 해당된다. 두번째의 기제는 이들 비친숙성 아이디어를 친숙성 아이디어로 實體化시키는 具體化 過程으로, 이 과정을 통해 추상적 수준에서 받아들여진 아이디어가 구체적 實物性을 갖게 된다. 이 단계를 거치면, 마음 속에 있는 아이디어가 물리적 세계에 실재하는 실상을 부여받게 된다. 즉 마음의 눈(眼)으로만 知覺되던 사물이 물리적 세계의 實體가 눈앞에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이 두개의 기제를 통해 비친숙성 대상이 친숙성 대상으로 轉化되어, 社會的 表象으로 誕生되게 된다.

據點化와 具體化의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檢討해 보기로 하자. 먼저 據點化는 分類(classification)와 命名(naming)의 두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어떤 것”이라는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무엇이라 부를 수 없는 대상은 外界感을 주며, 심지어는 실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威脅感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대상에 대해 저항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저항감을 극복하는 첫번째 단계는 이를 기존의 典型的 範疇에 分類 歸屬시키거나, 기존의 名稱을 이에 賦課하는 일이다. 일단 분류와 명명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대상에 대해 비교와 상상의 그루터

기가 마련된 셈이며, 表象化될 수 있는 성질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거점화의 첫단계가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는 분류 명명된 대상에 대한 具體化의 과정이 活性化된다. 이 과정에서는 비친숙성 개념을 실제의 세계속에 담구어, 현실을 구성하는 벽돌로 찍어내는 사고활동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개념은 내용물을 가진 조작할 수 있는 실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그 개념에 적합한 象的 模型을 발견하여, 이 둘을 결합시키는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선택된 象的 模型은 概念的 構造를 재생할 수 있는 이미지 구조로서, 새로운 개념을 同化시켜 이를 새로운 표상으로 재생해내는 모형의 역할을 함으로, 이를 模型(mode)또는 構想的 核(figurative nucleus)이라 부른다. 구성적 핵이 개입되면서 관념의 세계는 지각의 세계로 대체된다. 여기서 또하나의 사회적 표상이 생성되는 것이다.

라. 맺는말

Moscovici는 Heelas와 Lock(1981)의 저서, “土着心理學：人類學的 自己”의 서문에서, 이 책은 象徵(symbol)과 事件(event)를 모두 담고 있다는 점에서, 社會心理學과 人類學을 합성한 책이라 평하고 있다. 덧붙여 그는, “사회심리학은 자기문화의 과학이며, 따라서 현대세계의 인류학이어야 한다”고 記述하고 있다(Moscovici, p.viii in Heelas & Lock, 1981). 그는 社會心理學에 現象學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면서, 社會的 表象개념은 바로 이 결핍된 부분을 메꾸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社會的 表象理論은, 사회심리학이란 학문에서, “社會的”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이론과 연구에 반영하려는 사회적-사회심리학을 具顯하려 한다는 것이다(Farr, 1987). 그러나 사회심리학에서 社會·文化的 要素와 現象學的 概念을 다루게 될 때, 과연 지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실험사회심리학의 연구결과는 사회적 표상이론과 어떤 관계를 가지며, 그 속에서 어떤 位相을 부여받게 될 것이냐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큰 숙제로 남게 된다. Moscovici일파는 미국식 사회심리학에서의 社會的 認知研究와 社會的 表象理論間的 관계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Farr, 1987). 그러

나, 이들이 말하는 관계성은 서독이 동독을 併呑하는 식의, 併呑式 吸收를 배경에 두고 있다.

다음으로는 社會的 表象 이론에서의 研究方法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提起될 수 있다. 이들의 이에 대한 대답은 “複合的”이란 말로 대신된다. 이들의 연구는 實驗的 研究에서부터(예컨대, Abric, 1971; Abric and Kahan, 1972; Codol, 1974; Flament, 1984등), 歷史的 分析(예컨대, Moscovici의 Le Bon연구), 커뮤니케이션 분석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이들은 心理學的, 人類學的, 歷史的 方法 등을 併用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相互的 妥當화가 가능하며, 동시에 좀더 풍부한 자료를 섭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Rom Harre(1984)는 이들이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게 될 때, 개인을 자료의 출처로 사용해야 하므로, 또다시 미국식의 개인적 사회심리학으로 轉落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社會的 表象이론에서, 歷史的, 文化人類學的 方法에만 의존할 때 심리학 기준의 精密性과 妥當性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결과도 종래의 人類學이나 社會學에서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다는 딜레마를 갖게 된다.

끝으로 Durkheim의 集團表象 概念을 개조해서 만든 社會的 表象이론이, 과연 새로운 전통의 학문분야라고 자칭할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Deutscher(1984)는 Moscovici가 Durkheim의 거대한 이론체계로부터 集團表象이라는 한가지 개념을 끌어와 새로운 학문적 전통을 만든다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한다. 동시에 Deutscher와 Moscovici 일파의 일원인 Farr(1978)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연구의 내용면에서 볼때, Moscovici의 社會的 表象이론은 오히려 Durkheim의 집단표상이론보다는 미국사회학에서의 象徵的 相互作用主義의 전통에 보다 가깝다고 말한다. 또한 어떤 학자, 예컨대 Farr(1987)는 Moscovici의 少數影響力(minority influence)에 관한 연구를 예로 들어, Moscovici 자신이 이 연구가 자신의 표상이론 체계속에서의 核心的 研究의 하나라고 스스로 언급한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그의 표상이론은 社會改變 및 變化에서 리더와 같은 개인적 영향력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Weber의 이론에 더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oscovici의 母胎的 理論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는 간단치 않다. 社會的 表象의 개념에 국한시켜 그 이론을 보면 Berger와 Luckmann(1966)의 現實의 社會的 構成概念(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에, Cicourel의 解析的 社會學에, 또 어떤 면에서는 Garfinkel(1967)의 民族學的 接近(ethnomethodology)과 많은 共通點을 갖는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Moscovici는 Durkheim 이론에서의 核心概念인 集團表象을 變容시켜 사용하였으나, 스스로 Durkheim이론의 추종자임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Moscovici의 이론은 Durkheim의 이론과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표상이론의 母胎的 理論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는, Moscovici 자신이 선택할 문제임과 동시에, 앞으로 그 이론의 발달과정을 지켜보고 난 후에 결정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Abric, J. C. (1971). Experimental study of group creativity: Task representation, group structure and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3, 311--326.
- Abric, J. C. & Kahan, J. (1972).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s and behaviours in experimental gam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 129--144.
- Arendt, H. (1982). *Letters on Kant's political philoso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rger, P. L. and Luckmann, T.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Allen Lane.
- Berlin, I. Vico and Herder(1976). *Two studies in the history of ideas*. New York: Viking.
- Codol, J. P. (1974). On the systems of representation in a group situ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 3, 343--365.
- Durkheim, E. (1898). Représentations individuelles et représentations collectives. *Revue de Metaphysique et de Morale*, VI, 273--302.

- Farr, R. and Moscovici, S. (Eds.) (1984).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r, R. (1987). Social representations: A French Tradition of research.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r*, 17:4, 343-369.
- Farr, R. (1989). The social and collective nature of representation. In J. P. Forgas & J. M. Innes(Eds.),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Vol. 1. Social Psychology. Amsterdam: North-Holland, 157-166.
- Flament C. (1984). From the bias of structural balance to the representation of the group.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69-285.
- Garfinkel, H. (1967). *Studies in ethnomethodolog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 Harré, R. (1984). Some reflections on the concept of "Social Representation." *Social Research*, 51: 4, 927-938.
- Harré, R. (1985). Review of social represent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6: 1.
- Heelas, P. and Lock, A. (Eds.)(1981). *Indigenous psychologies: The anthropology of the self*. London: Academic Press.
- Herzlich, C. (1973). *Health and illness: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London: Academic Press.
- Kaplan, A. (1964). *The conduct of inquiry*. San Francisco: Chandler.
- Markova, I. (1962). *Paradigms, thoughts and language*. Chichester: Wiley.
- Moscovici, S. (1961). *La Psychanalyse: Son image et son public*. Étude sur la représentation sociale de la psychanaly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Moscovici, S. (1963). Attitudes and opin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31-260.
- Moscovici, S. (1981). On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Academic Press, 181-209.
- Moscovici, S. (1981). *L'Âge des Foules: Un traité historique de psychologie des masses*. Paris: Fayard.
- Moscovici, S. (1984). The phenomen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69.
- Moscovici, S. (1985). *The age of crowd: The historical treatise on mass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scovici, S. (1988). Notes towards a descript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211-250.
- Putnam, R. A. (1971). Seeing and observing. *Mind*, 78, 459-479.
- Rommetveit, R. (1984). The role of language in the creation and transmiss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In R. M. Farr & S. Moscovici(Eds.), *Social Represent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31-359.

원고 초 본 접수: 1990. 8. 27
원고 수정본 접수: 1990. 10. 4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Theory of Social Representation

Sang-Chin Choi

Chung-Ang University

Despite its enormous paradigmatic influence upon social psychology and psychology in general in European context, the concept of Serge Moscovici's social representations suffers from definitional ambiguity. It still remains at the level of debate as to what it is and/or what it is not. The present paper was addressed primarily to this conceptual dispute. In particular, an emphasis was placed upon integrating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as well as conceptual developments of social representations, on which a more solid and reified conceptualization of the concept was sought. Implications were made in relation to the currently dominant tradition of individualistic American social psychology, particularly focusing upon the area of social cognition. Finally, methodological issues associated with the theory were discussed.